

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88년은 거의 1년간 설립 초기 KISDI가 한 일은 주로 기구의 정비, 연구분위기의 쇄신, 연구방향의 확정, 그리고 연구활동의 지속으로 종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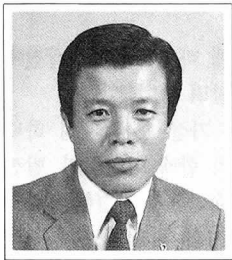
2년째를 맞는 새해 치증하려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5개의 실에 따르는 기능, 분야별 연구활동과 연구과제의 수행이라는 二元体制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연구조정실, 정책연구실, 정보문화실, 동향분석실 및 국제협력실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정책연구실에 소속된 과제별 연구팀을 상호 유기적 연관 아래 운영하고자 한다.

다음, 국가적 연구기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연구축적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팀별로 전공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연구를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요금정책, 공공기업의 민

營化 경쟁정책, 시장개방 그리고 법령제정 및 정비 이외에도 경제, 경영, 사회, 정치, 법 등 제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중장기 연구과제를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밖에도 새해 중요사업의 하나로서 KISDI가 명실공히 국가적 데이터뱅크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동향분석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자료실의 보강 등이 뒤따라야 한다.

끝으로 한국에 있어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1989년은 교육적 차원에서 정보사회가 가져오는 사회과학적 창의를 폭넓게 인식되고 또 국민 모두에게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정보통신분야의 위상정립 필요성

金 永 泰

(에스·티·엠 사장)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분야가 어떤 수준이어야 할까. 누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에 부닥친다. 공적인 학술회나 좌담회에서도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갑론을박하고 사적인 술 자리에서도 이런 화제로 안주를 삼는다.

우리 한국이 IMF 8조국이 된 이 시점에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영국의 수준을 하루라도 빨리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EC제국중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독일의 현재 제도를 따라야 할지, 대만이나 남미의 어느 나라들을 택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입에 거품을 물며 논쟁을 한다. 신중론을 펴는 사람이나 적극론을 펴는 사람이나 이런 논의는 활발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견도 그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의견이라면 결코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는 각자의 논지와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92년도에 예상되는 통합된 EC 제국내에서의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하여 커다란 변혁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89년의 한국은 세계경제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되고,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짧은 기간동안에 점증하게

될 무역장벽을 어떻게 넘어 가며, IMF 8조국 가입이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자유화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며, 원고 노임고, 물가고의 경제환경은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측면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위상전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현재는 NICS 제국일지 모르나 이미 구미 각국이나 일본이 많은 면에서 경쟁의 양상을 더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섬유, 신발, 전자제품, 철강재 등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이들 선진국의 세계적인 대기업과 한바탕 벌어지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보다 나은 품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보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신속히 공급하는데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제품 개발력이 뛰어나야 하고, 원가인하가 되어야 하며, 적기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세가지 요소의 어느 하나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없이는 선진국 수준에 따르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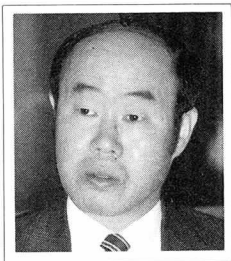
제품개발에 필수적인 CAD 하나만 들어도 선진국에서는 1.544MBPS의 고속 회선으로 수십 km 떨어진 여러 공장들이 연결되어 정보통신망을 공유하면서 설계, 조달, 제조, 영업이 유기적으로 즉시 조화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사에서는 C4

라는 CAD/CAM/CAT/CIM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차의 개발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나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일에 정보통신 분야의 기여도는 한정된 지면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재고를 줄이고 불량률을 낮추려면 제조업자와 판매점 및 소재부품 공급업자간의 정보통신이 활발해짐으로써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일은 결코 종전의 정보통신 분야 개념으로는 도저히 선진 각국과의 경쟁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인공위성을 매개한 통신망과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세계 도처와 정보교환을 하면서 일하고 있으니 적기에 싼 물자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기업보다 한단계 앞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새해 1989년이야말로 우리 정보통신 분야로서는 획기적인 해가 되어야 하겠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 분야의 촉진을 위하여 각종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기 시작하였고, KTA나 DACOM에서도 고속통신회선을 포함한 각종 자원과 시설을 설치 제공하겠다고 하니 이제야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새해의 발전을 기원한다.



## 정보문화확산, 그 2년차를 가늠한다.

金 光 鍊

(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본부장)

“산 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했듯이 지금은 정보혁명으로 인해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정보기술로 인해 정보가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보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해 다가오는 정보화사회가 밝고 쾌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해 1월 정보문화센터가 발족된 이래 1년동안 우리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갖가지 행사와 홍보매체를 통해 외쳐 왔다.